

부 록 1

초보자를 위한

자랑스러운 천도교 역사

- ※ 본 부록은 초보자를 위해 정리된 교사 내용입니다.
- ※ 본 부록에 실린 내용은 김응조 교서편찬위원, 이창번 의창수도원장 두 분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천도교약사』를 비롯한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신사의 시천주 득도
2. 해월신사의 생명사상
3. 인간평등의 역사적 전기를 이룩한 동학혁명
4. 민족계도를 위해 종교적 편견없이 투자했던  
천도교의 교육운동
5. 국권회복을 위해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6. 신문화운동을 선도한 개벽사의 출판운동
7. 어린이운동의 발상지 천도교
8. 우리나라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를 이룩한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
9. 해방 후 천도교의 남북분열저지운동
10. 민족의 전당으로서의 천도교중앙대교당

### 1. 대신사의 시천주 득도

대신사의 시천주 득도는 선천시대의 초월적 신관을 혁파한 후천개벽의 신념체계로서, 장차 시공을 초월하여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고도의 과학문명과 조화 상생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관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 2. 해월신사의 생명사상

대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천지부모와 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해월신사의 가르침과 경천·경인·경물의 삼경사상은 현재와 미래의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 건설의 지표가 된다.

### 3. 인간평등의 역사적 전기를 이룩한 동학혁명

동학혁명은 압제받던 민중의 신분해방운동을 통해서 만민평등의 이념을 실천적으로 구현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이 보국안민의 주체임을 입증한 근대적 인권운동의 백미였다.

### 4. 민족계도를 위해 종교적 편견없이 투자했던 천도교의 교육운동

의암성사는 폐교직전의 보성전문학교·동덕여학교의 인수 경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30 여개의 사학을 오로지 민족계도 일념으로 편견없이 지속적으로 지원 운영하였다.

### 5. 국권회복을 위해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3·1 운동은 천도교의 주도 아래 기획, 재정부담, 조직동원, 독립선언서의 인쇄, 독립신문의 발행 등 전교단적으로 전력투구했던 자랑스러운 역사다. 상해 임시정부의 탄생은 천도교의 이러한 희생적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 6. 신문화운동을 선도한 개벽사의 출판운동

민족정기 함양을 위해 「개벽」지를 비롯해서 각종 계층별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잡지언론계를 주도하면서 신문화운동의 견인적 역할을 자담했던 개벽사의 문화사적 업적은 분명히 자랑스러운 천도교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 7. 어린이운동의 발상지 천도교

불모지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운동을 활성화시킨 천도교소년회의 어린이운동은 장유유서의 틀 속에 종래에 멸시해왔던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예우 받을 수 있는 가치관의 대전환을 이룩한 위대한 혁명적 운동이었다.

## 8. 우리나라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를 이룩한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

일제의 경제착취정책에 대응해서 천도교청년당이 전개한 조선농민사의 농민운동은 당시 사회주의 세력의 농민운동을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농민운동으로서 특히 농민공생조합을 통한 자립갱생운동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가 된다.

## 9. 해방 후 천도교의 남북분열저지운동

해방 후 국토분단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미·소를 등에 업은 남·북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유엔결의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분열저지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으로 북한 공산당에 의해 많은 교인이 희생되었으나 당시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갈등을 연출했던 해방정국의 와중에서 남북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실천적·희생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한 조직은 오직 천도교 밖에 없었다.

## 10. 민족의 전당으로서의 천도교중앙대교당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나는 3·1 운동은 천도교중앙대교당의 신축을 명분으로 전국 교인들이 논밭과 황소 등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 헌납한 성금에 의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중앙대교당의 위상은 민족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손색이 없다.

### 1) 동학혁명의 반봉건 반침략운동

동학혁명의 1 차 봉기 성격은 반봉건적 개혁운동이며, 2 차 봉기는 반외세 반침략운동이다. 1 차 봉기는 조병갑의 학정과 가렴주구, 그리고 안핵사 이용태의 극악한 행패가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동학군은 이러한 작태가 단순히 고부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절대왕권치하의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하여 백성이 주인인 민주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반봉건혁명의 봉화를 들게 된 것이다.

그러나 1 차 봉기의 결실로 나타난 전주화약과 민정기관 집강소의 행정개혁에 대해 정부는 조선조 통치기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행위로 간주한 나머지 외세를 끌어들이어 동학군 진압에 나섰다. 한반도에 진주한 일본군은 결국 왕궁을 점령하여 김홍집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청국군마저 축출한 후 동학군 토벌에 앞장섰다. 이에 동학군은 보국안민의 일념으로 일본군을 축출하기 위해 총기포하였으니 이것이 제 2 차 반침략운동이다.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교사편찬위원회, 73~103 쪽 참조

### 2) 동학군의 민정기관 집강소

집강소는 우리 근대사에서 조선조의 절대왕권에 대응하여 호남 전역에 설치했던 동학군의 민주적 민정기관이다. 전주성 무혈점령 후 동학혁명군과 정부간에 체결된 전주화약에 의해서 설치된 집강소는 해월신사가 제정한 육임(六任)의 집강(執綱)을 정점으로 하여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했다. 또한 의사기관(議事機關)이 있어 의사원들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했다. 집강소는 전주화약에 의한 폐정개혁안에 따라 탐관오리의 징치, 신분차별의 철폐, 공사채의 폐지, 억울한 서민의 송사 해결, 토지문서의 소각과 경작지의 분작 내지는 소작료의 삭감 등 사회적으로 동학의 평등이념을 실천 수행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의 기능을 다했다.

#### 집강소의 영향 - ‘계급차별의 신분제 공식 철폐’

집강소의 신분해방운동은 우리나라의 신분제도를 개혁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포덕 35 년(1894 년) 6 월 11 일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여 동학군의 폐정개혁을 검토하였으며, 그 후 김홍집 내각이 갑오경장(甲午更張)을 실시하면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6 월 28 일 사회신분제 폐지를 의결한 데 이어 7 월 2 일에 이를 칙반천인에 까지 확대 실시케 함으로써 뿌리 깊은 계급차별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없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동학군 집강소 통치의 직접적인 영향이요 성과였다. 집강소를 통한 민정이 실시되고 신분제 타파,

폐정개혁이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평등사회가 실현되어 나가자 호남 일대는 이른바 ‘마당포덕’이 일어나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났다.

『천도교약사』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73~103 쪽 참조

### 3) 동학군의 폐정개혁안

폐정개혁안은 동학혁명군의 전주성 무혈점령 후 정부와 동학군 간의 협상과정에서 동학군이 제시한 개혁안으로, 이 개혁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전주화약이 성립되었다. 폐정개혁안에는 12 개조, 14 개조, 27 개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동학혁명에 직접 참여했던 오지영의 「동학사(東學史)」에 의한 폐정개혁안 12 개조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학군이 집강소를 통해서 시행한 각종 폐정개혁행정이 「동학사」에 나타난 12 개조 폐정개혁안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 ‘폐정개혁안 12 개조’

- 1) 도인(道人)과 정부 사이에는 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고 서정(서정)을 협력할 것.
- 2)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일일이 엄하게 징벌할 것.
- 3) 횡포한 부호(富豪)들은 엄히 징벌할 것.
- 4) 불량한 유림(儒林)과 양반(兩班)들의 폐습(弊習)을 징벌할 것.
- 5) 노비문서(奴婢文書)는 태워버릴 것.
- 6) 칠반천인(七班賤人)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白丁) 머리의 평양립(平壤笠:패랭이)은 없앨 것.
- 7) 청춘과부(青春寡婦)는 재혼을 허락할 것.
- 8) 무명잡세(無名雜稅)는 모두 폐지할 것.
- 9) 관리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人才)를 등용할 것.
- 10) 왜(倭)와 내통하는 자는 엄히 징벌할 것.
- 11) 공사채(公私債)를 물론하고 지난 것은 아울러 없이 할 것.
- 12)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 경작케 할 것.

『천도교약사』 <전주화약의 성립> 87~88 쪽 참조

## 1. 지도자 양성

### 1)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우리나라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3.1 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임시정부가 없고 상해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독립도 없었을 것이다.

####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2) 일제의 무단통치

1910년 8월 삼천리 금수강산은 송두리째 일본에게 병합되고 말았다. 일본정부는 조선총독에 현역 육군대장을 임명하고 헌병으로 치안경찰까지 장악하는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는데 무단통치기간에는 재판절차없이 검거, 투옥, 고문, 처형을 마음대로 자행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식민지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한국병합과 동시에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제외한 모든 언론기관과 출판물을 없애버리고, 교육기관과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한일병합에 앞장 섰던 일진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단체, 체육단체, 친목단체까지 모든 단체를 해산하고 어떤 집회도 불허하여 독립운동을 원초적으로 봉쇄하려 하였다.

### 3) 빼앗긴 국권은 10년 안에 반드시 찾아온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의 소식을 접한 성사께서는 그날 아침 중앙총부 조회석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왜놈에게 빼앗긴 주권은 내 10년안에 반드시 찾아 온다. 이 일은 조직과 힘을 가진 천도교만이 가능하다.”

『천도교약사』 <경술국치와 의암성사> 160~161쪽 참조

#### 4) 독립운동의 거점 봉황각

일년동안 총독부의 행동을 주시하신 성사께서는 1911년 11월 당시 경기도 고양군에 속한 심산유곡인 우이동에 약 28,000평의 임야를 매입하고 이듬해 1912년 3월 봉황각을 기공하고 거사를 준비할 거점을 마련하였다. 수도원은 전국 어디서나 올 수 있고 인원과 체류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운동을 준비하는데 안성맞춤인 곳이다.

『천도교약사』 <봉황각 건축과 전국 교역자 특별수련> 165~166쪽 참조

#### 5) 국권회복에 필요한 지도자 양성

봉황각을 기공한 성사께서는 전국에서 21명의 중요교역자를 소집, 1912년 4월 15일부터 도선암에서 49일 수련을 시작으로 1914년 3월까지 7차에 걸쳐 483명을 양성하였다. 이때 성사께서는 “연성의 묘법은 이신환성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대들이 생각하는 ‘나’라는것은 ‘유형한 나’이니 이 ‘유형한 나’를 ‘무형한 나’로 바꿀것ियो. 사람은 평소에 견실한 수련을 쌓지않으면 위급한 경우를 당하여 마음이 흔들리나니 이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꼭 수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신환성은 육신은 일시적이요 성령은 영원하니 성령을 위해 살라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초개와 같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곳에서 49일 수련을 마친 483명의 중요교역자들은 전국 방방곡곡 270여개 교구로 흩어져 후일 벌어진 3.1 독립운동의 전위대가 되었다.

3.1 독립운동시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경과 싸웠던 평안북도 정주, 평안남도 맹산, 성천, 그리고 수원 제암리 등지에는 이곳 봉황각 49일 수련생이 진두지휘 했음을 알 수 있다.

『천도교약사』 <봉황각 건축과 전국 교역자 특별수련> 165~166쪽 참조

## 2. 거사자금 조성

### 1) 거사자금 조성을 위한 대교당건축

당시 300만 교도를 자랑했던 우리교회는 경영이 어려운 서울 시내 20여개 사립학교에 매월 10 ~ 100원씩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매월 수천원씩 저금이 가능하여 은행에 66,000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총부 공금을 독립운동에 사용했을 때 왜놈들에게 천도교를 말살시킬 구실을 줄 염려가 있어



1918년 4월 부구총회에서 대교당건축을 위해 전국교인 1호당 10원 이상의 건축헌금을 내기로 결의하였다. 걸으로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을 건축하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3.1운동을 위한 자금모금에 중점을 두었다.

### ‘부구총회 교당신축가결’

중앙총부회보(중앙총부회보)

○ 부구총회 : 연례에 의하여本月 4일 상오 11시에 본교당내에서 부구총회를 개(開)하고 부구에 관한 일체사항을 의정(議定)하다.

○ 교당신축가결 : 금번 부구총회에서 본교당은 매년기념시(時)를 당하면 다수한 인원을 수용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본교창립기념이 재이(在邇)하도록 상당한 교당이 무(無)함은 일대 유감임으로 내(來)경신 사월 5일내로 교당을 신축하기로 가결되었더라.

『천도교회월보』 제 93호, 포덕 59년 4월호

『천도교약사』 <독립자금 마련 위해 대교당 신축> 167~168쪽 참조

### 2) 교인들의 성금은 국권회복에 사용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당시 왜경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교당 신축 성금은 100만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교당건축에 22만원, 중앙총부 청사에 5만원, 계 27만원을 제외한 돈이 대부분 3.1운동 거사자금과 해외독립운동에 쓰여졌다.

기독교의 동참을 이끌기 위하여 5,000원을 지원하였고, 독립선언서 인쇄현장을 적발한 한인형사 신승희에게 5,000원, 일본정부와 미국대통령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데 소요된 예산,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김규식박사 등 비용 3만원, 1919년 2월 임시정부 수립자금과 이강공 망명자금으로 2차에 걸쳐 6만원을 지급하는 등, 우리교인들이 땅팔고 소를 팔아 헌금한 돈이 이처럼 국권회복운동에 쓰여졌다.

『천도교약사』 <독립운동의 계획과 추진> 172쪽 참조

『의암손병희선생전기』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민족역량의 총집결> 341쪽 참조

### 3) 3.1운동 후에도 임시정부 지원

그후 천도교에 대한 감시과 단속이 강화되어 자금지원이 어려워지자 상해 법조계안에 전도실을 설치하고 만주 안동시에 삼신상회란 간판을 걸고 제반 연락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천도교는 상해 임시정부와 해외 독립운동을 위하여 의산 최동오, 일주 김의중, 강재 신숙선생을 파견하였다.

### 3.3.1 대항전

### 1) 3 . 1운동의 준비지시

1918 년 11 월 4 년간이나 끌어온 1 차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종식되고 이듬해인 1919 년 1 월 세계의 정상들이 파리에 모여 대독강화조약체결을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성사께서는 독립운동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 2) 독립운동의 3대원칙

의암성사는 1919 년 1 월 최린·권동진·오세창을 불러 독립운동의 3대원칙을 제시하면서 국권회복운동의 준비를 지시하였다. 3대원칙은 첫째독립운동은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화 시킬 것, 둘째 독립운동은 일원화 할 것, 셋째 독립운동은 비폭력으로 할 것 등이다. 성사께서는 세분에게 왜경의 감시가 심하니 최린이가 주도하되 중요한 문제는 셋이서 의논하라고 지시하였다.

『천도교약사』 <독립운동의 계획과 추진> 171 쪽 참조

### 3) 전교인 특별기도 실시

1919 년 12 월 24 일 인일기념일에 참석한 지방의 두목들을 상춘원에 소집한 성사께서는 “장차 우리 면전에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차대하다. 우리들이 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무위무능하게 놓쳐버릴수는 없다. 내 이미 정한바 있으니 여러분은 분발하여 대사를 그릇됨이 없게하시오.” 라고 하시면서 명년 1 월 5일부터 나라를 위한 49 일 특별기도를 개최하도록 명하였다.

『천도교약사』 <독립운동의 계획과 추진> 169~170 쪽 참조

### 4) 독립선언서의 기초와 민족대표의 선정

최린은 독립선언서의 집필을 최남선에게 맡기고 독립선언서에 올릴 민족대표는 을사늑약과 합방조약에 끝내 서명하지 않은 지조높은 대신중에서 선정하기로 하고 한규설·윤용구·박영효·윤치호와 접촉하면서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으나 한결같이 거절당하였다.

1919 년 2 월 평북 정주 오산중학교 설립자인 기독교 장노 이승훈을 만나 기독교와 같이 하기로 하고 이승훈이 요청한 거사자금 5,000 원을 지급하고 2월 27 일 독립선언서에 같이 서명하였다.

민족대표의 선정은 천도교 15 명, 장로교 7 명, 감리교 9 명, 불교 2 명, 계 33 명이며 유교의 대표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였다.

『천도교약사』 <독립운동의 계획과 추진> 173 쪽 참조

### 5) 천도교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인쇄

한편 민족대표의 서명날인이 끝난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인쇄소인 보성사에서 사장 이종일과 공장장 김홍규 그리고 사환등이 문을 걸어 잠구고 두차례에 걸쳐 35,000 매를 인쇄하여 신축중인 대교당에 운반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천도교약사』 <독립선언서의 작성 서명과 인쇄배포> 175 쪽 참조

## 6) 교단전체가 일제에 유린당해

3.1 운동의 주도체가 천도교요 독립선언서의 인쇄도 또한 거사자금을 지원한것도 천도교란 것이 탄로되자 천도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가혹하기 그지없었다.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천도교 보성사는 6 월 28 일 일제의 방화로 소실되었고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66,000 원을 몰수하고 성사택을 위시하여 중앙총부 간부의 집은 안방까지 모조리 수색하여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자금일부를 현금으로 분산 은닉해 두었던 자금도 전부 몰수당하였다.

또한 일제는 중앙총부의 서류를 압수하고 교무행정을 강제로 중지당하여 몇 달동안 대교당 시일식도 중단 당하였으며 33 인의 한분이신 양한묵선생도 옥중에서 순도하였고 서울대교구장 장기염도 심한 고문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교하였다

3.1 운동은 성사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당시 천도교는 전국에 270 여개 교구와 300 만 교도를 가진 우리나라 최대의 종단이였다. 성사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중앙집권제의 조직을 가진 유일한 단체였다. 성사님의 용단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힘을 가진 천도교가 있었기에 3.1 운동이 가능했다. 의암성사는 3.1 운동을 위해 한울이 보내신 위인이였다.

그해 5월 말일까지 일인에 의해 집계된 피해는 다음과 같다

집회건수 : 1542 회 시위참가 인원수 : 200 만명

살해 : 7,645 명 부상 : 45,562 명 체포 : 49,811 명

가옥소실 : 724 호 교당소실 : 59

『천도교약사』 <천도교단의 막대한 타격-3.1 독립운동의 후유증> 187~190 쪽 참조

『3.1 운동사론』 이현희 저, 145 쪽 참조

『의암손병희선생전기』 <요원의 불길 민족의 쫓겨> 371 쪽 참조

3.1 운동에서 우리민족의 거족적인 항쟁에 놀란 일본은 무자비한 무단통치로 인한 민심의 이반을 깨닫게되어 3.1 운동이 진정국면에 들어선 8 월 총독을 경질하게 되었다. 신임총독인 사이토(齋藤 實)는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임하면 조선의 고유문화의 창달에 힘쓰며 경찰제도를 회복하고 조선인의 관리 등용을 대폭 늘리고 관리들의 제복 대검(帶劍)을 폐지하고 제한적이거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도 허용하여 격앙된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무마 하겠다 하였다.

## 1. 청년이 일어서다.

### 1)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

총독의 기자회견내용이 발표될 무렵 우리교회는 성사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중에 있었다. 총독의 기자회견 내용이 발표된 다음날인 1919 년 9 월 2 일 김기전.박달성.이돈화.정도준.박내홍 등 청년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발빠르게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설립하였다.

교리강연부에는 편술부.지육부.음악부.체육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지부조직을 확장해 나가면서 교역자의 투옥으로 침체된 지방교구를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지도체제의 재정비에 착수하였다.

### 2) 천도교청년회

1920 년 4 월 25 일 간부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교리강연부 명칭을 천도교청년회로 바꾸기로 하였다. 천도교 청년회가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한 것이 개벽지의 발행과 어린이운동이었다.

#### (가) 『개벽』지의 발행

1920 년 6 월 청년회 편집사업으로 언론기관인 개벽사를 창설하여 김기전.이돈화. 방정환.차상찬.박달성 등이 핵심이 되어 종합잡지 『개벽』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개벽』은 1920 년 5 월 22 일에 신문지법에 의한 출판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총독부가 한국인에게 잡지의 발행을 허가한 첫 번째 케이스다.

#### (나) 가장 악질적인 잡지로 낙인

6 월 25 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종합잡지인 『개벽』의 창간호가 발행되었으나 표지그림을 트집 잡아 발매금지를 당하여 이를 삭제하고 다시 호외형식으로 발행 하는 등 창간호부터 수난을 당하였다.

6 년 동안 72 호를 발행하는 동안 34 회나 발행금지, 정간 1 회, 벌금 1 회라는 엄청난 수난을 당하였으며 1926 년 8 월 박춘우가 집필한 “모스크바에 신설된 국제농학원”이란 논문을 문체 삼아 폐간시키고 말았다.

일제 36 년 동안 『개벽』 지만큼 일제와 언론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한 다른 예가 없다.

『천도교약사』 <제도약을 향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의 창립> 191~194 쪽 참조  
『천도교약사』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출판운동> 265 쪽 참조

### 3) 어린이운동

(가) 어린이운동은 천도교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 운동이 우리나라 최초로 천도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더욱이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인이란 것, 그리고 의암 손병희선생의 사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스웨덴이 낳은 세계적인 교육자인 엘렌 케이가 19 세기는 전통적 가부장제 속에서 여인을 눈뜨게 한 부인운동의 세기였다면 20 세기는 아동을 위한 세기 곧 아동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인정되는 세기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 1900 년이고 그러한 여론에 의해 국제연맹이 5 개조의 어린이 권리선언을 채택한 것이 1924 년이었다.

(나)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보다 35 년이나 앞선 1989 년 11 월 해월신사께서 내수도문을 반포하시면서 “어린이식 치지 말고 울리지 마옵소서. 어린이도 한울님을 모셨으니 아이 치는 것이 곧 한울님을 치는 것이다.” 라고 아동인권을 명문화 하였고 국제연맹이 5 개조의 어린이 권리선언을 채택하기 2 년 전에 이미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여 5 월 1 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거행한 바 있다.

(다) 천도교소년회

3.1 운동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좌절되자 장차의 독립운동은 먼장래를 내다보면서 어린이들에게 민족사상을 심어주는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방정환.김기전이 중심이 되어 1921 년 5 월 1 일 천도교소년회를 결성하였다. 천도교소년회는 이듬해 1922 년 5 월 1 일 창립 1 주년을 맞아 이 날을 「어린이의 날」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가짐으로써 이날이 어린이날의 효시가 되었다.

1923년 4월 17일 천도교소년회, 불교소년회, YMCA 조선소년군 관계자들이 만나 조선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어린이』지 발행

1923년 3월 개벽사에서 『어린이』지가 발행되었다. 1934년 7월 통권 122호로 폐간될 때까지 11년에 걸쳐 이나라 어린이들에게 천도교의 인내천사상을 심어주고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또한 동요 동시의 발표무대가 없었던 당시에 『어린이』지는 동요의 발표무대로 큰 역할을 하였다. 아직도 애창되고 있는 “반달” “고향의 봄” “오빠생각” “두루미” “설날” 등 수많은 동요가 『어린이』를 통해 발표되고 그 애조 먼 곡조는 나라 잃은 어른들에게도 애창되었다.

『천도교약사』 <천도교청년회 어린이운동의 선구적 역할> 278쪽 참조

『천도교약사』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출판운동> 268쪽 참조

#### 4) 천도교청년당

『개벽』지의 발행과 어린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민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청년회보다 위상을 격상한 전위단체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돈화 . 김기전 . 박사직 . 조기간 . 박내홍 등은 1923년 9월 2일 천도교청년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천도교청년당을 창당하였다. 청년당은 당세를 확장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위해 농민, 노동, 청년, 학생, 여성, 소년, 상민등 7개 부문운동을 전개하였다.

(가) 여성운동

1924년 4월 5일 주옥경여사, 김우경, 손광화 등이 주동이 되어 천도교내수단을 조직하였다. 내수단은 여성에 대한 폐쇄 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하여 계몽활동을 통한 여권신장운동과 생활개선사업에 주력하여 120여 곳에 지부를 설치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였다.

내수단의 강령은 첫째 천도교를 믿는 여자로 하여금 천도교의 종지에 맞는 새세상을 만드는데 있어 한갓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함, 둘째 단결을 굳건히 하여 일반여자의 지위를 향상케 함.

내수단은 단원의 실천사항으로 색옷입기, 미신타파, 10만호 포덕운동, 문맹퇴치 사업을 전개하였다.

(나) 농민운동

처음 농민운동은 당에서 직접 관장 하지 않고 일반 사회인사와 하여 1925 년 10 월 29 일 조선농민사를 창립하고 이사장에 이성환을 선출하며 기관지 『조선농민』을 발행하였다

1930 년 4 월 3 차 전선대표대회에서 그동안 청년당의 실질적 지원을 받아오던 조선농민사의 경영을 현실화하여 농민사를 천도교청년당의 부문단체로 확정하고 당의 지도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조선농민사는 각군에 알선부를 신설하여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일용품과 농산물을 공동구입 공동출하를 실시하였고 1931 년부터는 공생조합을 조직하였는데 1933 년 군농민사 153 개소, 리농민사 3 천여개소, 사원수 20 여만명, 공생조합 180 여개, 조합원이 5 만 여명, 조합기금이 30 만원을 넘었다.

1931 년 12 월 조선농민사 중앙이사회는 평양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고무신공장을 신설하고 양질의 고무신을 싼값에 보급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공생조합이 중심이 되어 부락단위 공동경작도 실시하였다.

#### 기관지 발행

1925, 12. - 1930, 4. 『조선농민』

1930, 5. - 1933, 12. 『농민』

『천도교약사』 <천도교청년당의 창건> 207 쪽 참조

『천도교약사』 <천도교내수단의 창립>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출판운동>

210, 267 쪽 참조

『천도교약사』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출판운동> <조선농민사를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276, 286 쪽 참조

## 2. 교육사업

### 1) 학교설립의 포부

성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족혼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함양시키는 방법이 두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천도교가 동학 창도이래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것을 실현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학교교육을 진흥시켜 민지(民智)를 개발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일찍부터 학교의 신규설립의 포부를 가지고 계셨다.

### 2) 사립학교 20 여교에 재정지원

1906 년 1 월 5 일 일본에서 귀국한 성사께서는 당시 서울시내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재정난으로 교원의 봉급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폐교위기에 처해있음을 알게되자 신규 학교설립은 잠시 보류하고 기설학교의 지원에 착수하였다.

3 월초 사립보성학교에 80 원을 기증하고 이어 서부 합동소학교에 40 원을 지급하고 다음달에는 시내외 사립학교 20 여개교에 대하여 학생수와 교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매월 10 ~ 100 원의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 3) 보성학교의 인수

구한국시대 궁내부 내장원경이었던 이용익이 1905 년 전문학교 중학교 소학교를 가진 보성학원을 건립하여 운영하였으나 그해 11 월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국권을 회복코자 연해주로 망명하자 그의 손자 이종호가 교주로 경영하였으나 1910 년 8 월한일합방 이후 이종호도 연해주로 망명했다. 이에 보성학원은 폐교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보성학원의 직무대리 윤익선은 성사주에게 직접 학교의 인수경영을 제의해오자 보성학교의 부채 3 만원을 청산하고 1910 년 12 월 대도주 춘암상사명의로 인수하게 되었다.

『의암손병희선생전기』 <보성학원의 경영> 281,282 쪽 참조

### 3) 일류사립학교로 육성

학교를 인수한 교회에서는 학교교사를 새로 신축하는 등 시설투자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명문 사립학교로 육성하였다. 3.1 운동 후 재정난으로 운영비를 담당할 수 없어 사회 각계에서 기금을 모아 1922 년 4 월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를 설치하고 학교를 재단에 인계하였다. 천도교에서 12 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총 35 만원이 투자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성전문학교를 인계하면서 천도교가 기부하기로 한 10 만원을 지불할 수 없게 되자 성사께서 기거하시던 상춘원과 송현동의 구 총부대지와 건물도 함께 넘어갔다.

천도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고려대학이 존재하게 된것이다

### 4) 동덕 여학교 인수

동덕여학교는 1908 년 조동식씨가 소안동에 개인사택 방한칸을 빌려 동원여자의숙으로 시작한 학교이다. 성사께서는 1909 년 11 월에 100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그 후 매월 보조금으로 70 원을 지원하고 관훈동에 200 여 평 부지와 32 칸 기와집까지 기부하였지만 자립할 수 없어 1914 년 12 월 27 일 설립자 조동식의 요청으로 춘암상사 명의로 경영권일체를 인수받게 되었다.

학교를 인수 후 168 평의 2 층 양옥으로 학교를 신축하고 학교발전에 심혈을 경주하여 명문 여자 사립학교로 육성하였으나 3.1 운동후 재정난으로 1923 년 12 월 25 일 최초 설립자인 조동식에게 조건 없이 인계하였다.

『의암손병희선생전기』 <동덕여학교의 경영> 287 쪽 참조

### 5) 일제의 철저한 자금봉쇄



3.1 운동을 천도교가 주도했고 거사자금 일체를 천도교가 부담한 사실을 알게된 일제는 철저히 자금원을 봉쇄하여 천도교를 고사시키려고 하였다.

폐교위기에 몰린 보성학교와 동덕학교를 인수하여 수십만 원의 막대한 투자로 명문 사립학교로 육성하여 성사님의 오랜 숙원사업인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는 듯싶었으나 일제의 방해로 수포로 돌아가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었다.

### 3. 출판사업

#### 1) 출판사 보문관 설립

1906 년 1 월, 성사께서는 최신 인쇄기와 활자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귀국시 가지고 들어와 2 월에 박문사인쇄소를 설립하였다. 4 월에 박문사를 주식회사 보문관으로 변경하고 각종 교서를 발행했다. 그 후 보성학원 인수 시 인쇄소 보성사를 인계받아 우리교회 출판문화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천도교약사』 <만세보와 천도교회월보의 발행> 138 쪽 참조

#### 2) 독립선언서의 인쇄

1910 년 보성학원 인수시 보성사도 같이 인수받았으나 매년 적자가 계속되자 성사에게 보성사 처분을 건의하자 “ 나라가 막대한 돈을 들여 군대를 양성함은 유사시 한번 쓰기 위함인데 적자가 난다고 출판사를 판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성사를 유지하였는데 후일 3.1 운동시 35,000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성사님의 선견지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천도교약사』 <독립선언서의 작성 서명과 인쇄 배포> 175 쪽 참조

#### 3) 만세보의 발행

언론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 성사께서 귀국후 신문발행을 서둘러 1906 년 6 월 중앙총부 기관지를 겸한 일간지로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만세보』는 항일 민족지로서 일진회의 친일행위를 규탄하고 이용구의 출교사실을 보도하는 등 언론을 통한 구국계몽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만세보는 신문화운동에도 공헌했으며 특히 7 월부터 연재한 “혈의 누(血의 淚)” “귀의 성(鬼의 聲)” 등은 신문소설의 효시로 유명하다.

『신인간』 127 년 4 월호

#### 4) 천도교월보

1910 년 천일기념 후 성사께서 기관지 발행을 지시하시어 현기실내에 월보과를 신설 8 월 15 일 오후 4 년이란 연호를 가지고 창간호가 나왔다. 10 여일 후 국권상실로 2 호부터 일본 명치연호로 바뀌게 되었다.

『천도교회월보』는 기관지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바가 보국안민을 우선하기 때문에 민족계도적 논설로 일제의 압수 삭제 등 심한 탄압을 받아오면서도 발행을 계속하다가 멀왜기도사건후 1938년 3월 통권 315로 폐간되고 말았다.

### 5) 신인간

1925년 4월 의결수정문제로 이견(異見)을 조정하지 못하여 신.구파로 분열되자 『천도교회월보』가 구파 기관지로 넘어가자 신파는 1926년 4월 1일 기관지 『신인간』을 창간하게 되었다. 해방 전 1945년 1월호 통권 189호까지 발행하고 폐간했다가 광복이후 속간하여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장수 잡지중의 하나다.

『신인간』지를 창간한 1926년은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다

이때 전위단체인 청년당이 7부문을 이끌어 나가면서 개벽사의 3대월간지(『개벽』/『어린이』/『신여성』)와 『농민』지, 그리고 통권 300호에 육박하던 『천도교회월보』 등 5가지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우리나라 잡지언론을 선도했다.

『신인간』 114년 4월호

### 6) 당시 발행하던 월간지

|        |                        |         |
|--------|------------------------|---------|
| 『개벽』   | : 1920, 6. - 1926, 8.  | 통권 72호  |
| 『어린이』  | : 1923, 3. - 1934, 7.  | 통권 122호 |
| 『부인』   | : 1922, 6. - 1923, 8.  | 통권 14호  |
| 『신여성』  | : 1923, 9. - 1934, 8.  | 통권 38호  |
| 『조선농민』 | : 1925, 12. - 1930, 6. | 통권 30호  |
| 『농민』   | : 1930, 7. - 1933, 12. | 통권 42호  |
| 『학생』   | : 1929, 3. - 1930, 11. | 통권 18호  |
| 『별건곤』  | : 1926, 11. - 1935, 9. |         |
| 『혜성』   | : 1931, 3. - 1932, 4.  | 통권 13호  |
| 『제 1선』 | : 1932, 5. - 1933, 3.  | 통권 10호  |
| 『중성』   | : 1929, 3. - 1930, 4.  |         |
| 『새벗』   | : 1929, 3. -           |         |

**‘민족대표 33인 명단’**

| 성명  | 연령 | 종교  | 직책   | 연도형량    |
|-----|----|-----|------|---------|
| 손병희 | 60 | 천도교 | 3세교조 | 3년      |
| 최린  | 42 | 천도교 | 교장   | 3년      |
| 권동진 | 60 | 천도교 | 도사   | 3년      |
| 오세창 | 57 | 천도교 | 도사   | 3년      |
| 이종일 | 62 | 천도교 | 월보과장 | 3년      |
| 임예환 | 55 | 천도교 | 도사   | 2년      |
| 권병덕 | 53 | 천도교 | 도사   | 2년      |
| 나인협 | 49 | 천도교 | 도사   | 2년      |
| 홍기조 | 56 | 천도교 | 도사   | 2년      |
| 김완규 | 44 | 천도교 |      | 2년      |
| 나용환 | 57 | 천도교 | 도사   | 2년      |
| 이종훈 | 65 | 천도교 | 장로   | 2년      |
| 홍병기 | 52 | 천도교 | 장로   | 2년      |
| 박준승 | 55 | 천도교 | 도사   | 2년      |
| 양한묵 | 56 | 천도교 | 도사   | 옥에서 순도  |
| 이승훈 | 56 | 장로교 | 목사   | 3년      |
| 박희도 | 31 | 감리교 | 간사   | 2년      |
| 최준모 | 47 | 감리교 | 목사   | 2년      |
| 신흥식 | 49 | 감리교 | 목사   | 2년      |
| 양전백 | 51 | 장로교 | 목사   | 2년      |
| 이명룡 | 48 | 장로교 | 장로   | 2년      |
| 길선주 | 52 | 장로교 | 목사   | 무죄      |
| 이갑성 | 34 | 장로교 | 사무원  | 2년 반    |
| 김창준 | 31 | 감리교 | 전교사  | 2년 반    |
| 이필주 | 51 | 감리교 | 목사   | 2년      |
| 오화영 | 41 | 감리교 | 목사   | 2년 반    |
| 박동완 | 35 | 감리교 | 서기   | 2년      |
| 정춘추 | 45 | 감리교 | 목사   | 1년 반    |
| 신석구 | 40 | 감리교 | 목사   | 2년      |
| 유여대 | 43 | 장로교 | 목사   | 2년      |
| 김병조 | 43 | 장로교 | 목사   | 중국으로 망명 |
| 한용운 | 42 | 불교  | 승려   | 3년      |
| 백용성 | 57 | 불교  | 승려   | 1년 반    |

**‘봉황각 특별연성자 명단’**

| <b>제 1 회연성자 21인 포덕 53년 4월 15일-49일 월보 23호(포덕 53년) 44쪽</b> |          |          |          |
|--|----------|----------|----------|
| 구창근(具昌根)   | 박준승(朴準承) | 이정점(李貞漸) | 정계완(鄭桂玩) |
| 김병태(金炳泰)   | 오영창(吳榮昌) | 이종석(李鍾奭) | 최주억(崔周億) |
| 라인협(羅仁協)   | 이병춘(李炳春) | 이채일(李采一) | 한태훈(韓泰勳) |
| 박문화(朴文華)   | 이승우(李承祐) | 임예환(林禮煥) | 한현태(韓賢泰) |
| 박용태(朴溶台)   | 이정석(李鼎錫) | 전희순(全熙淳) | 홍기억(洪基億) |
|  |          |          | 홍기조(洪基兆) |

| <b>제 2 회연성자 49인 포덕 53년 8월 15일-49일 월보 제 30호 45쪽</b> |          |          |          |
|--|----------|----------|----------|
| 강봉수(姜琫秀)   | 박낙양(朴洛陽) | 이군오(李君五) | 장승관(張承官) |
| 길학성(吉學晟)   | 박인각(朴麟珏) | 이기완(李岐琬) | 정도영(鄭道永) |
| 김명선(金明善)   | 박화생(朴花生) | 이돈하(李燾夏) | 정승덕(鄭承德) |
| 김병주(金炳柱)   | 방기창(方基昌) | 이동구(李東求) | 정용근(鄭溶根) |
| 김봉년(金奉年)   | 방찬두(方燦斗) | 이상우(李祥宇) | 주덕인(周德仁) |
| 김수옥(金洙玉)   | 백영노(白永魯) | 이용의(李龍儀) | 진중구(陳鍾九) |
| 김승주(金승周)   | 신광우(申光雨) | 이유년(李有年) | 최사민(崔士岷) |
| 김안실(金案實)   | 안처흠(安處欽) | 이정화(李正和) | 최석운(崔碩運) |
| 김연구(金煉九)   | 오명운(吳明運) | 이종수(李種秀) | 최영곤(崔永坤) |
| 김영언(金泳彦)   | 우세하(禹世夏) | 임래규(林來圭) | 한관진(韓寬珍) |
| 김종범(金宗範)   | 유계선(劉啓善) | 임영수(林永秀) | 한세교(韓世敎) |
| 김진팔(金鎭八)   | 윤병설(尹炳高) | 장남선(張南善) | 홍봉소(洪鳳巢) |
|  |          |          | 황학도(黃學道) |

| <b>제 3 회연성자 49인 포덕 54년 1월 1일-49일 월보 제 33호 41쪽</b> |          |          |          |
|---|----------|----------|----------|
| 강흥룡(康興龍)  | 김춘식(金春軾) | 신정집(辛精集) | 임복언(林復彦) |
| 김기선(金起善)  | 김현구(金顯龜) | 신태천(申泰天) | 전종호(全宗浩) |
| 김명준(金命俊)  | 라원경(羅元經) | 안국진(安國鎭) | 정계근(鄭桂瑾) |
| 김복윤(金福倫)  | 라종선(羅宗善) | 안명석(安命錫) | 정이하(鄭履河) |
| 김사진(金泗振)  | 문길현(文吉鉉) | 엄종성(嚴鍾晟) | 정태교(鄭泰僑) |
| 김성립(金成立)  | 문철모(文哲謨) | 오기홍(吳基弘) | 정혜남(鄭惠南) |
| 김용환(金龍煥)  | 박왕식(朴旺植) | 이규식(李圭植) | 조종봉(趙鍾鳳) |
| 김의태(金義泰)  | 박형석(朴滢錫) | 이대원(李大源) | 차성옹(車聖翁) |
| 김중화(金重華)  | 백낙용(白洛龍) | 이성구(李星九) | 최정익(崔挺翼) |
| 김창석(金昌錫)  | 변응찬(邊應燦) | 이용길(李龍吉) | 한상익(韓祥翊) |
| 김처길(金處吉)  | 송두옥(宋斗玉) | 이인조(李寅祚) | 한승록(韓承祿) |
| 김처성(金處聲)  | 신상희(申相熙) | 이초옥(李楚玉) | 황하식(黃河湜) |

| 제 4 회연성자 49인 포덕 54년 4월 6일-49일 월보 제 36호 40쪽 |          |          |          |
|--|----------|----------|----------|
| 강익점(姜益漸)                                   | 김태중(金泰鍾) | 신광로(辛光魯) | 임순호(林淳灑) |
| 김광준(金光俊)                                   | 노상우(魯相祐) | 원치영(元致英) | 전철진(全哲鎭) |
| 김국언(金國彦)                                   | 류한영(柳漢永) | 유문학(劉文學) | 정상용(鄭相容) |
| 김귀연(金貴淵)                                   | 박선명(朴先明) | 윤세현(尹世顯) | 정영순(丁永詢) |
| 김기수(金基洙)                                   | 박인화(朴仁和) | 이경섭(李景燮) | 정한영(鄭漢泳) |
| 김사빈(金士彬)                                   | 박장우(朴莊祐) | 이관국(李觀國) | 조석휴(趙錫休) |
| 김세업(金世業)                                   | 박창락(朴昌洛) | 이기동(李起東) | 지동섭(池東燮) |
| 김순택(金淳澤)                                   | 박창훈(朴昌勳) | 이상현(李象鉉) | 최공순(崔兢淳) |
| 김양근(金良根)                                   | 백관범(白寬範) | 이용뢰(李龍雷) | 최승우(崔承雨) |
| 김용진(金龍田)                                   | 백응규(白應奎) | 이정복(李廷馥) | 최효건(崔孝健) |
| 김응욱(金應旭)                                   | 백찬호(白燦浩) | 이필화(李弼和) | 홍성운(洪聖運) |
| 김준흥(金俊興)                                   | 손태용(孫太龍) | 임기진(林淇鎭) | 홍순걸(洪淳杰) |
|  |          |          | 홍하청(洪河淸) |

| 제 5 회연성자 105인 포덕 54년 11월 1일-49일 월보 제 43호 39쪽 |          |          |          |
|--|----------|----------|----------|
| 강문옹(康文雍)                                     | 김중록(金中祿) | 안 중(安 鍾) | 임승태(林承泰) |
| 권형중(權衡重)                                     | 김지렴(金志濂) | 안봉하(安鳳河) | 임인환(林寅煥) |
| 기 순(奇 順)                                     | 김진선(金鎭璿) | 안승환(安承煥) | 장세화(張世華) |
| 김경함(金庚咸)                                     | 김창덕(金昌德) | 안영석(安永錫) | 장신덕(張信德) |
| 김광한(金光翰)                                     | 김창도(金창道) | 오준영(吳俊泳) | 장운용(張雲龍) |
| 김기홍(金基洪)                                     | 김택서(金澤瑞) | 유병순(柳炳順) | 전규하(全奎河) |
| 김길봉(金吉鵬)                                     | 김학주(金學周) | 유의열(柳義烈) | 전시홍(全時弘) |
| 김낙주(金洛疇)                                     | 김호진(金浩珍) | 유지관(柳志觀) | 정상열(鄭相悅) |
| 김두화(金斗華)                                     | 박기백(朴基伯) | 윤기호(尹基浩) | 정용진(鄭容鎭) |
| 김두환(金斗煥)                                     | 박노휘(朴魯輝) | 윤태홍(尹泰弘) | 조동용(趙東龍) |
| 김득연(金得連)                                     | 박삼원(朴三元) | 윤화수(尹和守) | 주창건(朱昌鍵) |
| 김득필(金得弼)                                     | 박승민(朴昇敏) | 이 영(李 英) | 최병훈(崔炳勳) |
| 김명후(金明厚)                                     | 박승업(朴昇業) | 이달해(李達海) | 최승주(崔承周) |
| 김명희(金命熙)                                     | 박용순(朴容순) | 이대수(李大秀) | 최안국(崔安國) |
| 김병열(金炳烈)                                     | 박인곤(朴仁坤) | 이덕선(李德善) | 최치순(崔致淳) |
| 김병준(金秉俊)                                     | 박종훈(朴宗勳) | 이병기(李炳基) | 최학승(崔學承) |
| 김병훈(金炳燠)                                     | 박찬수(朴燦洙) | 이수영(李壽榮) | 한병순(韓炳淳) |
| 김봉섭(金奉涉)                                     | 방진원(方鎭垣) | 이수일(李洙일) | 한석민(韓錫敏) |
| 김봉화(金鳳華)                                     | 배세창(裴世창) | 이승태(李昇泰) | 한영태(韓榮泰) |
| 김상정(金相鼎)                                     | 배용국(裴龍國) | 이승하(李承夏) | 한오준(韓五俊) |
| 김영하(金泳夏)                                     | 배원학(裴元鶴) | 이유상(李有祥) | 한용호(韓龍浩) |
| 김응록(金應祿)                                     | 백성연(白性淵) | 이의달(李義達) | 한인황(韓仁璜) |

|          |          |          |          |
|----------|----------|----------|----------|
| 김정담(金正澹) | 서상하(徐相河) | 이춘호(李春浩) | 한치운(韓致雲) |
| 김정삼(金鼎參) | 손응규(孫應奎) | 이흥용(李興龍) | 허병주(許炳周) |
| 김정일(金定鎰) | 송봉원(宋奉元) | 임근태(林根泰) | 홍명식(洪命植) |
| 김중황(金鍾黃) | 신명희(申明熙) | 임상열(林尙烈) | 홍순걸(洪淳杰) |
|          |          |          | 황기택(黃己柁) |

| 제 6 회연성자 105 인 포덕 54년 12월 18일-49일 월보 제 45호 38쪽 |          |          |          |
|--|----------|----------|----------|
| 가영노(賈榮魯)                                       |          | 백용희(白龍繪) | 이정모(李正模) |
| 강극삼(康極三)                                       | 김응두(金應斗) | 백인옥(白仁玉) | 이정신(李貞信) |
| 강병수(姜丙守)                                       | 김응하(金應河) | 서원조(徐圓朝) | 이진해(李鎭海) |
| 강대설(姜大設)                                       | 김인중(金麟鍾) | 송계조(宋繼祚) | 이학소(李鶴巢) |
| 강재원(姜載元)                                       | 김일주(金一疇) | 송응주(宋應柱) | 임동준(任東準) |
| 계용채(桂龍彩)                                       | 김진선(金眞善) | 신명천(申明天) | 장석항(張錫恒) |
| 고병걸(高炳傑)                                       | 김진형(金鎭衡) | 안두표(安斗彪) | 정용하(鄭龍河) |
| 고용모(高龍模)                                       | 김치명(金致明) | 양원로(梁元魯) | 정창국(鄭昌國) |
| 공예수(公禮洙)                                       | 김치송(金致松) | 양원섭(楊元燮) | 정학룡(鄭學龍) |
| 구덕희(具德喜)                                       | 김학천(金鶴天) | 양화국(梁華國) | 차낙준(車洛俊) |
| 구상주(具尙周)                                       | 독고훤(獨孤煊) | 오면수(吳勉秀) | 최단봉(崔丹鳳) |
| 권종국(權宗國)                                       | 라백춘(羅柏春) | 원용건(元容乾) | 최봉천(崔鳳天) |
| 김?호(金?鎬)                                       | 라의섭(羅義涉) | 유신항(劉信恒) | 최석찬(崔碩燦) |
| 김현룡(金現龍)                                       | 명봉주(明鳳周) | 윤승모(尹承模) | 최승익(崔承翊) |
| 김기추(金基秋)                                       | 민영일(閔泳一) | 윤재언(尹在彦) | 최신주(崔信柱) |
| 김두학(金斗學)                                       | 민원식(閔元植) | 윤학률(尹鶴律) | 최용기(崔龍基) |
| 김명진(金明鎭)                                       | 민치환(閔致煥) | 이계술(李啓述) | 최종준(崔宗駿) |
| 김문홍(金文弘)                                       | 박명두(朴明斗) | 이덕유(李德有) | 한기원(韓基元) |
| 김병준(李秉俊)                                       | 박예일(朴禮一) | 이민도(李敏道) | 한석균(韓錫均) |
| 김봉주(金鳳周)                                       | 박창렬(朴昌烈) | 이봉진(李鳳軫) | 한인혁(韓仁赫) |
| 김상설(金商設)                                       | 박필주(朴弼周) | 이수흘(李秀屹) | 허봉하(許奉河) |
| 김상중(金相重)                                       | 박흥주(朴興柱) | 이양배(李養培) | 현사성(玄社誠) |
| 김연추(金演樞)                                       | 방진구(方振球) | 이유정(李有楨) | 홍 순(洪 淳) |
| 김영만(金永萬)                                       | 백문선(白紋選) | 이응화(李應華) | 홍석항(洪碩恒) |
| 김영생(金永生)                                       | 백선택(白善澤) | 이재경(李載景) | 홍순의(洪淳儀) |
| 김영원(金榮遠)                                       | 백용승(白龍承) | 이재은(李載恩) | 황재국(黃在國) |

| 제 7 회연성자 105 인 포덕 55년 2월 5일-49일 월보 제 45호 38쪽 |          |          |          |
|--|----------|----------|----------|
| 강선녀(康善汝)                                     | 김재진(金載珍) | 신용주(申龍柱) | 이성교(李成敎) |
| 강성삼(康聖三)                                     | 김중원(金鍾元) | 신인경(申仁敬) | 이용갑(李用甲) |
| 강원필(康元弼)                                     | 김주환(金周煥) | 안 겸(安 鎌) | 이정수(李貞燧) |

|          |          |          |          |
|----------|----------|----------|----------|
| 계영선(桂英宣) | 김창식(金昌植) | 안초현(安初炫) | 이정화(李禎華) |
| 고처운(高處雲) | 김창식(金昶植) | 엄정주(嚴正柱) | 이중현(李鍾現) |
| 공달빈(孔達斌) | 김충간(金忠侃) | 오관익(吳瑄翊) | 이창준(李昌俊) |
| 궁상원(弓尙元) | 김치관(金致官) | 오윤경(吳允景) | 이창환(李昌煥) |
| 권사인(權思認) | 김치옥(金致郁) | 오준득(吳俊得) | 이태인(李泰仁) |
| 김광수(金光洙) | 김학두(金學斗) | 오창섭(吳昌燮) | 이학년(李鶴年) |
| 김덕화(金德華) | 김형모(金滢模) | 원명준(元明濬) | 이환위(李執胃) |
| 김도준(金道俊) | 김흥렬(金興烈) | 유공락(劉公樂) | 장계준(張啓俊) |
| 김도현(金道鉉) | 라형태(羅炯泰) | 유원태(柳遠台) | 장수헌(張壽憲) |
| 김맹흠(金孟欽) | 문성실(文成實) | 유종열(劉宗烈) | 정양로(鄭養魯) |
| 김문언(金文彦) | 문칠운(文七運) | 유창원(劉昌源) | 조경순(趙京淳) |
| 김병건(金炳建) | 박영(朴英)   | 유화인(劉化仁) | 조덕룡(趙德龍) |
| 김병린(金炳麟) | 박병협(朴炳協) | 윤대식(尹大植) | 최신을(崔信乙) |
| 김병훈(金炳勳) | 박봉의(朴鳳儀) | 윤병찬(尹秉贊) | 최영식(崔榮植) |
| 김봉덕(金鳳德) | 박용희(朴龍熙) | 윤운청(尹雲靑) | 최종섭(崔宗涉) |
| 김봉모(金鳳模) | 박정간(朴正侃) | 윤흥화(尹興華) | 최종하(崔宗河) |
| 김사걸(金仕傑) | 박찬수(朴燦洙) | 이관술(李寬述) | 최종희(崔宗禧) |
| 김영순(金泳珣) | 백용섭(白龍燮) | 이덕원(李德源) | 최주홍(崔周洪) |
| 김영주(金泳柱) | 변정훈(邊貞薰) | 이동수(李東洙) | 최찬구(崔贊九) |
| 김용문(金容文) | 서인화(徐仁和) | 이병건(李秉健) | 최홍선(崔弘善) |
| 김용운(金龍雲) | 손동칠(孫東七) | 이병운(李炳雲) | 탁천봉(卓千鳳) |
| 김윤하(金允河) | 신동석(申東錫) | 이봉진(李鳳震) | 한응택(韓應澤) |
| 김응수(金應洙) | 신석호(申碩浩) | 이삼갑(李三甲) | 허도(許鍍)   |
|          |          |          | 허준경(許俊敬) |

『천도교회월보』 제 23,30,33,36,43,45 호

『동학의 원류』 조기주 편, <봉황각 건축과 연성> 309~310 쪽 참조

<봉황각 특별연성자 명단> 369~373 쪽 참조

\* 『천도교회월보』와 『동학의 원류』에 나오는 명단의 이름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3 회 연성자의 명단은 48 명만 기재되어 있다.

## 천도교 성지 기사모음

- ※ 본 부록은 2007년 7월~9월 사이 <대구매일신문>에 실린 천도교성지 시리즈 기사입니다.
- ※ 본 부록에 실린 기사는 <대구매일신문>의 최미화 기자가 직접 천도교의 성지를 방문해 보고 작성한 것입니다.
- ※ 천도교 성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천도교성지①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1548&yy=2007](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1548&yy=2007)  
[7](#)

천도교성지②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744&yy=2007](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744&yy=2007)

천도교성지③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3892&yy=2007](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3892&yy=2007)

천도교성지④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964&yy=2007](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4964&yy=2007)

천도교성지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9408&yy=2007](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9408&yy=2007)